

‘景物詩’를 통해 본 龜巖 李楨 詩作의 향방

백운용*

- I. 머리말
- II. 논의의 전제
- III. 외적 驚異의 詩化 : 私的 인식에서 公的 인식으로의 전환
- IV. 내적 象徵의 詩化 : 求道の 세계와 得道の 경지 추구
- V. 외적 象徵의 詩化 : 상징의 해석과 새로운 상징 창출
- VI. 내적 驚異의 詩化 : 공간의 분위기 묘사, 그리고 상징의 발견
- VII. 맺음말

국문초록

시인이 대상으로 삼는 공간은 크게 자연의 공간과 인공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시인은 이를 대상으로 외적인 경이를 시화하기도 하고 내적인 상징을 시화하기도 하며 외적인 상징을 시화하기도 하고 내적인 경이를 시화하기도 한다.

구암 이정이 시를 쓰는 방법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들 시작법에 의거하여 이정의 시를 분석해 보면, 첫째, 자연의 공간을 대상으로 외적 경이를 시화하여 외경에 압도되어 흥취를 표출하기도 하며, 외경에 동화되어 자연의 공간을 완상의 대상으로 보기도 하였다. 또 외경을 통

* 경북대학교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 meeru100@hanmail.net

해 정감을 환기하여 자연의 공간에서 추억에 젖기도 하였으며, 한 차원 나아가 외경이 삶의 현실을 배제한 공간임을 분명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둘째, 자연의 공간을 대상으로 내적 상징을 시화할 때는 자연의 공간에서 도를 구하기도 하고 그 공간을 도가 실현되는 경지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이때 ‘源頭’에 대한 집착은 구도의 절실함으로 통하였고, 자연은 속세와 격리된 이상향이자 도가 실현되는 ‘大家’였다. 이정은 여기서 더 나아가 득도의 체험을 형상화함으로써 내적 상징의 시화가 이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셋째, 인공의 공간을 대상으로 외적 상징을 시화할 때는 상징에 매몰되어 교훈적 어조로 당부하기도 하였고, 인공물이 담지하고 있는 상징성을 풀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정은 외재한 상징을 넘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상징을 창출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하였다.

넷째, 인공의 공간을 대상으로 내적 경이를 시화할 때는 그가 처한 시간과 공간적 분위기에 젖어 상징을 버려두고 공간의 분위기를 묘사하였다.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발견’하는 경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인공의 공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징적 언어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필요하고, 상징적 의미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철학적 체계가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의미를 체화하여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정의 시 쓰기는 ‘경물시’만 놓고 볼 때,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시작의 네 가지 양상이 모두 구현되어 있으며, 그 표출 양상도 다양하다. 이뿐만 아니라 현실에 눈감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였으며, 득도의 경지를 체험하고, 새로운 상징을 창출하였으며, 감춰진 상징을 발견해내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그 가치를 더욱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주제어

이정(李楨), 구암(龜巖), 경물시(景物詩), 외적 경이(驚異)의 시화(詩化), 내적 상징(象徵)의 시화(詩化), 외적 상징(象徵)의 시화(詩化), 내적 경이(驚異)의 시화(詩化), 이정(李楨)의 한시.

I. 머리말

조선조 선비들은 학자이자 문인이었다. 유학을 바탕으로 한 학자적 삶을 견지하면서 삶의 장면마다 글쓰기를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기도 하였고, 더 나은 삶을 다짐하기도 하였으며, 자연과 대상에 대한 감흥을 쏟아내기도 하였다. 즉 삶의 장면마다 시를 통해 삶을 되돌아보는 일이 일상이었다.

성리학이 만개하기 시작한 16세기, 선비의 삶을 오롯이 살았던 龜巖 李楨(1512~1571)도 학문에 침잠한 학자이면서 동시에 삶을 글로 옮긴 문인이었다. 문집에 다양한 형식의 한시 300여 편이 남아 있으며, 그 소재와 주제도 다양하다. 이 때문에 그의 시에 대한 논의도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다.¹⁾

강구율은 이정의 시 전체를 대상으로 그 의미를 ‘관물찰리와 자연합일’, ‘역사와 민생에의 관심’, ‘귀원의지의 표출’로 파악하였고,²⁾ 이성혜는 이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이념시’, ‘역사·회고시’, ‘자경시’, ‘애민시’, ‘교유시’로 나누어 살폈다.³⁾ 한편 시 세계의 한 부분에 주목하여 전체를 꿰뚫어 보려는 시도도 있었다. 정우락이 ‘중용시’를 대상으로 이정의 한시의 시적 세계를 해명하고,⁴⁾ 정병호가 ‘애민시’를 대상으로 이정의 목민관적 면모를 부각한 것이⁵⁾ 대표적이다.

이 글에서는 이정의 한시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이어받으면서 이정의 한

1) 기존의 연구 성과는 한 차례 검토된 바 있다. 정우락에 의하면 시에 대한 전반적 성과는 강민구, 강구율, 이성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특징적인 측면은 정우락, 정병호 등에 의해 중용시와 애민이라는 주제가 부각되었다고 한다. 정우락, 「龜巖 李楨 연구의 반성적 모색」, 『퇴계학과 유교문화』 52, 2013, 61~62쪽.

2) 강구율, 「구암 이정의 생애와 시세계의 몇 국면」, 『우리문학연구』 20, 우리문학연구회, 2006.

3) 이성혜, 「구암 이정의 시 : 진지한 학문하기」, 『동양한문학연구』 26, 동양한문학회, 2008.

4) 정우락, 「『중용』이 구암 이정의 문학에 미친 영향」, 『동방한문학』 25, 동방한문학회, 2003.

5) 정병호, 「구암 이정의 애민시에 대하여」, 『동양예학』 18, 2008.

시의 한 特長인 ‘景物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이정은 1536년 문과별시에 장원급제하여 성균관 典籍으로 출사한 이래 23년간 관직 생활을 하였다. 그 가운데 19년을 영주군수, 선산군수, 청주목사, 경주부윤, 순천부사 등 지방의 목민관으로 지냈다. 또 이름난 명승지뿐만 아니라 이 땅의 곳곳을 누비며 두루 답사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정은 명승지와 유적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이름 없는 거주지⁶⁾에 닿을 때마다 시를 통해 삶을 돌아보고 자연과 역사에 대한 인식을 표출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정이 시를 통해 사유하고 드러내고자 했던 인식은 그가 지나온 고을과 답사한 ‘공간’을 읊은 시에 잘 녹아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그 공간은 크게 자연의 공간과 인공의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산과 물, 절로 생긴 높은 臺와 바위 등이 자연의 공간이며 누각, 정사, 정자 등이 인공의 공간이다. 이 둘을 포괄하여 이 글에서는 이를 ‘경물시’라 이름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경물시’는 일반적으로 자연의 경치를 읊은 시를 말하지만, 크게 보아 인공의 공간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 게다가 이정의 경우에는 자연의 경관을 읊은 시와 인공의 건축물을 읊은 시를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작품의 전체적인 면모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자연의 경치를 읊은 시뿐 아니라 인공의 조형물을 읊은 시도 함께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 그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6) <次公州板上韻>이 대표적이다. 정병호는 이 시에서 굶주린 백성의 참상이 무심히 피어 있는 화초와 어울리면서 참혹한 모습을 배가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정병호, 「구암 이정의 애민시에 대하여」, 『동양예학』 제18집, 2008, 239쪽.

7) ‘경물’은 ‘경치와 사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대체로 觀光하고 琬賞할 만한 것을 지칭한다. 이때 경치는 자연의 공간에 해당하고 사물은 인공의 공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둘은 모두 관광하고 완상할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景物：景致事物. 多指可供觀賞者. 『한어대사전』 8, 한어대사전출판사, 1991).

II. 논의의 전제

시인이 ‘자연의 공간’을 시로 읊을 때에는 그 대상이 자연의 공간이기 때문에 대상의 外景을 자아화하는 과정을 그친다.⁸⁾ 이때 외경은 시인에게 驚異로운 존재로 부각되며,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경이로움이 영탄과 감탄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자연의 공간은 자연 그대로 존재할 뿐이지만 시인은 거기에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깊은 골짜기의 물을 보고 심성의 근원을 따져보기도 하고 고요한 분위기에서 세속의 물욕을 벗어난 성찰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이다. 이때 詩作은 대상의 상징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와 달리 ‘인공의 공간’을 읊은 시는 인공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상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철학적 의미를 자아화하는 과정을 그친다. 인공의 구조물에는 그것에 命名한 ‘의미’가 있고, 또 그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이 결부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시인은 대상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대상이 함유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결부하게 된다. 그러나 인공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상징적 의미에만 매몰될 수는 없다. 그것이 존재하는 주변의 공간적 배경을 포착하여 詩化할 수도 있고, 시를 짓는 시간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감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인공의 공간 외부에 詩作의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 거기에 부여한 상징적 의미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공간과 시인이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시간이 시의 전면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자연의 공간과 인공의 공간을 포함하는 ‘경물’을 읊은 시는 다음의 네 가지 경우로 詩化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자연의 외적 경이를 시화하는 것이다. 이때 공간은 시인을 압도하고 시인은 공간

8) 조동일에 의하면, 서정의 갈래는 세계를 자아화하는 것이다. ‘경물시’의 대상인 세계는 관찰 가능한 ‘경물’과 내포되어 있는 ‘상징’이다. 시인은 이것을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내부에서 詩化하여 작품으로 표출하는 것이다(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2004. 참조).

의 외경을 주목한다. 이를 ‘외적 驚異의 詩化’라 이름할 수 있다. 둘째, 자연의 공간에 시인이 상징성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시인이 공간을 압도하여 공간을 자신의 이념적 세계 속에 편입한다. 이를 ‘내적 상징의 시화’라 할 수 있다. 셋째, 인공의 공간에 명명하고 부여한 역사적·철학적 상징을 시화하는 것이다. 이때는 그 공간이 시인을 압도하고 시인은 공간의 상징성에 주목한다. 이것은 ‘외적 상징의 시화’라 할 수 있다. 넷째, 시인이 인공의 공간과 시인의 시간 속에서 창조한 驚異⁹⁾를 시화하는 것이다. 이때 시인은 인공의 공간에서 발견한 새로운 경이에 주목한다. 이는 ‘내적 경이의 시화’이다.

詩作의 이와 같은 방향성은 작시의 일반론에 가깝다. 시인이 외부의 공간을 인식하여 시로 엮어내는 과정은 대체로 이 네 가지일 것이다. 이점의 경우도 여기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이점이 공간을 대상으로 시를 지으면서 적용하는 인식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렇게 드러난 인식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살핀 공간에 대한 네 가지 인식 양상을 중심으로 이점의 시 가운데 자연의 공간과 인공의 공간을 읊은 시, 즉 ‘경물시’를 대상으로 그가 자연과 인공의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점이 가지는 시적 세계의 일면을 좀 더 내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시작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경이와 상징의 관계는 보편적 공간보다는 개별적이며 구체성을 갖는 공간을 분석할 때 쉽게 간취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적이고 분명한 공간이 드러내는 구체적 상징성을 시인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가 연구자의 눈에 띄기 쉽기 때문이다. 또 그러한 상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징성 너머의 다른 경이에 주목한 상황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을 선정한다.

9) 상징성을 부여한 인공의 공간에서 상징성을 벗어난 ‘새로운 의미를 읽어 낸다’는 점에서 이는 창조적 행위이며, 그렇게 생겨난 의미는 ‘기존의 상징을 뒤집거나 대체한다’는 점에서 경이적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자연물과 인공물을 읊은 시를 모두 대상으로 포함하여 살핀다. 앞서 말했듯이 ‘경물’을 자연의 공간으로 한정할 경우, 대상에 대한 인식의 일면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자연물과 인공물을 함께 살필 때 이정의 공간 인식을 보다 면밀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 지역, 고을, 마을, 역참 등을 대상으로 한 작품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대상이 되는 공간의 정체가 뚜렷하지 않고, 공간과 상징의 관련성을 해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宿安彦驛>, <次結城韻>, <次檜山韻>, <次恩津板上韻> 등이 그것이다.

셋째,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의 형태로 쓰인 장소를 말한다. 정원, 동산, 누대 등이 일반명사로 쓰인 <寢園有吟>, <宿山堂>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에는 외경의 경이로운 모습이나 내부의 상징적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넷째, 작자에 대한 시비가 있는 작품은 생략하였다. 오보라에 의하면 『구암집』에서 작자가 의심되는 작품은 총 28편이라고 한다.¹⁰⁾ 이 가운데 공간을 읊은 시로는 『소재집』에도 실려 있는 <泊龍灘> 등이 있다.

이를 정리하여 논의 대상으로 삼은 시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元集：龜巖 丁未，三恨齋，登佛日庵前峯 俯窺龍湫鶴湫 戊午，五十溪龍湫 壬戌，登靜觀臺(退溪先生 改以大觀臺) 己巳，宿安心寺(在固城) 留宿灌園堂，遊魚靜洞 己酉，山海關 丁酉 赴京時，葩申洞口(在清州) 乙卯，天淵臺 壬戌，梁山觀魚，利見臺 二首，遊內迎山，到昇平 訪臨清臺(臺即寒暄金先生被謫時所遊處也 臺廢無遺址 只有老樹) 甲子，忠州自警堂 次李忘軒青韻，自頭流 還泊牙湖 登快哉亭 戊申，次梅鶴亭韻 丁未，凝翠樓，訪吾魚寺(寺在延日)，石臺(百泉西溪).¹¹⁾

10) 오보라, 「이정 『구암집』 수록 작품의 작자에 대한 재검토」, 『한문학보』 29, 우리한문학회, 2013.

11) 텍스트로 삼은 원자료는 『韓國文集叢刊』 33(민족문화추진회, 1989)에 수록한 『구암집』이며, 사천문화원·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회에서 발간한 『구암집』(성기옥 옮김, 2013)을 참조하였다. 아래 『속집』도 동일하다.

續集：訪吾魚寺 壬戌，月夜遊小蓬島(在長鬢)，過內迎山(在清河)，排房寺 戊申，登佛日庵前峯 俯窺龍湫鶴湫，夏日 登靜觀臺，次黃磻駕鶴樓韻，題支磯巖，寬心亭(在黃岡)，次友蓮堂韻，遊直指寺 丁未，宿斷俗寺 夜雪新霽 月色如畫，濯纓潭，石澗臺，遊內迎山，登靜觀臺，蕩春臺，題孤山亭，二月三十日 西岳精舍有作 二首(精舍有誠敬齋 時習堂 詠歸樓 澡雪軒)，次梅鶴亭韻 其二 丁未，次李求禮梅月亭韻。

이들은 다시 인공의 공간과 자연의 공간, 그리고 그것은 각각의 공간 속에서 외적 경이의 시화, 내적 상징의 시화, 외적 상징의 시화, 내적 경이의 시화라는 양상으로 작시가 이루어진다. 아래에서는 각각을 분석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정이 남긴 ‘경물시’의 의미를 찾아보기로 한다.

Ⅲ. 외적 경이의 시화 : 私的 인식에서 公的 인식으로의 전환

1. 흥취의 표출

이정이 자연의 공간을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 하나는 자연물이 주는 위압적 경관에 압도당하는 모습이다. 이때 자연은 그대로 영탄의 대상이 되며, 그것은 자연스럽게 ‘興趣’로 표출된다.

千尋緣古棧
萬仞陟危巖
腳底羣山小
潭中萬象涵
沖空仙鶴舞
入竇老龍潛
落日貪幽趣
忘歸——探

천 길 깊이에 오래된 棧道 매여 있고
만 인 높이에 위태로운 탑이 솟아 있네.
발 아래로 여러 산이 작아 보이고
못 속에는 만 가지 형상이 어려 있도다.
텅 빈 하늘에 선학이 춤을 추고
들어간 구멍에는 노룡이 잠겨 있네.
날 저물도록 그윽한 흥취를 즐기며
돌아가길 잊어버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네.¹²⁾

이 시는 이정이 47세 때 불일암 앞의 봉우리에 올라가 그 아래를 바라보며 지은 것이다. 이정은 천 길의 깊이, 만 인의 높이에서 바라보는 용추와 학추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그곳에서 용과 학을 상상한다. 그리고 그 모습에 자신의 존재마저 잊은 채 날 저무는 줄도 모른다.

여기에는 자연이 지닌 外景의 경이로운 모습에 압도당한 시인의 내면적 심상이 잘 드러나 있다. 이는 주변의 경관이 작아 보일 정도의 높이와 만상이 잠길 듯한 넓이에 압도되어 경이로운 마음으로 자연을 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정은 높이와 넓이가 주는 위압감 안에서 오히려 그 옅한 흥취[幽趣]에 젖어 든다. 이는 자연의 공간이 주는 놀라움이 감탄으로 이어지고 감탄이 주는 쾌감에 몰입함으로써 가슴속의 기쁨으로 솟아난 것이다. 이정에게 외적 경이가 시화되는 한 양상은 이처럼 흥취를 만끽하는 자아의 표출이었다.

아래의 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 |
|-------|--------------------------------------|
| 佳麗西原地 | 아름답고 고운 서원 지방 |
| 風流此日開 | 이 날에 풍류가 열렸네. |
| 高歌春晚野 | 봄날 저녁 들관엔 노랫소리 드높고 |
| 芳醪客登臺 | 객이 오른 누대엔 술 향기 아름답네. |
| 興逐閒雲遠 | 흥취는 멀어지는 구름을 쫓아가고 |
| 詩從夕照來 | 詩句는 다가오는 저녁놀 따라오네. |
| 百花迷醉眼 | 온갖 꽃들이 취한 눈을 어지럽히니 |
| 應見玉山顛 | 술 취해 쓰러짐을 웅당 볼 수 있겠네. ¹³⁾ |

작품의 소재인 지기암에서 한때의 술자리가 벌어진다. 노랫소리가 높고 술 향기가 아름다우니, 구름을 따라 흥취가 일어나고 저녁놀을 따라 詩句가 생겨남은 酒宴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7, 8연을 통해 볼 때 지기암에서의 주연이 흥취를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주변 가득 피어난 꽃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玉山처럼 무너진 이유가 주

12) <登佛日庵前峯 俯窺龍湫鶴湫> 『韓國文集叢刊』 33, 469쪽.

13) <題支磯巖> 『韓國文集叢刊』 33, 471쪽.

변의 꽃들에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자연의 경이에 압도당한 시인은 술이 아니라 주변의 꽃으로 인해 흥취가 도도해진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즉 경이에 감격한 심상이 흥취로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¹⁴⁾

2. 완상의 대상

자연의 공간에서 외적 경이를 詩化하는 두 번째의 양상은 자연을 즐기는 대상, 즉 완상물로 인식하는 것이다. 앞의 공간 인식이 자연의 경이에 압도당하여 ‘자연>자아’의 관계에 있다면, 자연의 공간을 완상 혹은 소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연=자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외적 경이는 시인을 압도하지 못하고 시인은 경이를 즐길 여유를 가지고 공간을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을 극명하는 보여주는 시어는 ‘徘徊’・‘往來’ 등이다.

今朝雲翳豁然開
盡日窮源踏翠苔
花柳滿山誰會意
一川風月獨徘徊

오늘 아침 먹장구름 활연히 개였기에
종일토록 근원 찾아 푸른 이끼 밟았네.
꽃과 버들이 산을 채운 뜻을 그 누가 알리오
한 줄기 시냇물 바람과 달빛에 홀로 배회하노라.¹⁵⁾

이 시는 포항의 내영산¹⁶⁾을 읊은 것이다. 내영산에 쌓였던 구름이 걷히자 신비로운 모습이 드러난다. 이것은 자연의 공간이 경이를 드러내는 지점인데, 그 경이에 압도당한 이정은 근원을 찾아 종일토록 헤맨다. 그

14) <月夜遊小蓬島(在長鬢)>〔『韓國文集叢刊』 33, 467쪽.〕에서도 같은 심상을 읽어낼 수 있다. “바다 트이니 푸른 파도 멀어지고(海闊滄波遠) 서리 내리니 붉은 나무 짙어지네(霜繁紅樹多). 밤 깊자 소나무에 내린 달빛이 밝아지니(夜深松月白) 나그네 흥취 어떠하겠나(遊子意如何).” 이때 4연의 ‘意’에서 흥취의 절정이 표출된 것을 알 수 있다.

15) <遊內迎山>, 『韓國文集叢刊』 33, 422쪽.

16) 현재의 공식적 명칭은 ‘내연산’이나, 시 제목에 근거하여 ‘내영산’이라 하기로 한다.

러나 이정은 그 경이에 압도당하여 내영산의 모습을 영탄하거나 그로 인한 도도한 흥취를 드러내지 않는다. 시넷물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과 그 아래를 비추는 달빛 아래를 서성일 따름이다.

그 서성임의 원인은 우주의 근원을 탐색하려는 시인의 의도된 발걸음 때문이었다. 시인의 이러한 몸짓은 구도자와 몸짓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정은 원류의 근원을 끝내 발견하지 못하고 짐작만 할 뿐이며, 자연은 자연대로 꽃과 버들로 산을 채우고 있다. 내영산은 근원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정 또한 경이에 압도당하지 않았다. 이 시에서 자연의 공간은 이정이 감내할 만큼의 크기로 다가오고, 이정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결국 자연의 공간은 완상과 배회의 대상이 되고, 자연과 자아의 관계는 대등해진다.

아래의 시에는 자연의 공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 | |
|---------|------------------------------------|
| 江上巖巖百尺臺 | 강가에 우뚝 솟은 백 척 높이 대에서 |
| 暖風晴日久徘徊 | 따뜻한 바람 맑은 날 오래도록 방황하네. |
| 淵淵浩浩無窮地 | 넓디넓어 무궁한 이 땅에 |
| 問柳尋花幾往來 | 봄 구경하기 위해 얼마나 오갔던가. ¹⁷⁾ |

이정은 백 척 높이의 대에서 오래도록 ‘徘徊’한다. 그리고 무궁한 땅에서 봄을 찾아 ‘往來’한다. 강가의 우뚝한 대와 넓디넓은 이 땅은 공간의 경이로운 모습이다. 이 자연물은 시인을 압도하여 경탄을 자아내게 할만하다. 그런데 이정은 이 공간에 압도되어 탄성을 지르지 않는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완상하며 오래도록 방황하고 여러 차례 왕래했을 뿐이다. 자연을 시인의 눈높이까지 낮추어 즐기는 속에서 공간은 시인의 인식과 동일화하고 있다.¹⁸⁾

17) <天淵臺 壬戌>, 『韓國文集叢刊』 33, 422쪽.

18) <龜串洞口(在淸州) 乙卯>(『韓國文集叢刊』 33, 421쪽.)에서도 같은 심상을 읽을 수 있다. 사방의 웅장한 모습 살아있는 그림인 듯(四面雄奇活畫開) 한 줄기 강 흐르고 만산이 둘러 있네(一江中注萬山回). 강산에 진 빛 형용할 시 하나 없어서(無詩可答江

3. 정감의 환기

자연의 공간에서 외적 경이를 시화하는 세 번째의 양상은 자연을 통해 정감을 환기하는 것이다. 이 정감의 노출은 철저히 자연의 공간에 의해 일어나고 또한 자연에 대한 어떠한 상징적 인식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뒤에서 다룰 ‘내적 상징의 시화’와는 다르다.¹⁹⁾

자연의 공간에서 외적 경이를 시화할 때, 그것을 ‘흥취의 표출’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연의 경이에 압도당하여 ‘자연>자아’의 관계에 있다. 또 ‘완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연=자아’의 관계에 있다. 여기에 대해 정감의 환기처로 인식하는 것은 ‘자연<자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때 시인에게 자연의 경이는 경탄을 자아내는 무엇이나 함께 즐겨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시인의 정감을 환기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자연의 공간은 왜소해지고 시인의 자아는 강대해진다. 이때에는 자아가 시의 전면에 부각하기도 하고 행동을 요구하는 시어가 등장하여 행동을 촉구하기도 한다. 이것은 외적 경이를 시로 옮기면서 자연의 공간을 통해 추억을 환기하기도 하고 현실 인식을 촉구하기도 한다.

堪歎何年續此遊
一春心事碧江流
澗邊送別丁寧語
追憶令人白盡頭

감격에 겨워 여기서 몇 년이나 노닐었나
한 봄 시름이 푸른 강 따라 흐르네.
석간대 가에서 송별하던 간곡한 말들
흰머리 다하도록 추억하게 하는구나.²⁰⁾

山(債) 가을바람에 피리 한 소리만 공연히 오고 가네(一簾秋風空往來). 이 시에서는 살아있는 듯한 웅장한 자연이지만 거기에 압도되지 않고 피리 소리에 붙이는 넉넉함을 느낄 수 있다. 4연의 ‘往來’는 유유한 완상을 표상하는 시어라 할 수 있다.

- 19) 자연과 자아의 관계에서 자아의 우위를 드러내는 대표적 시작의 방법은 ‘내적 상징의 시화’이다. 상징은 사회적 합의 속에 사물에 병치된 의미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시로 드러날 경우 더욱 자아의 의미 부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외적 경이의 시화’에 나타나는 자연에 대한 자아의 우위는 자연의 경이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연을 통해 자아의 정감을 표출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내적 상징의 시화’와 차별성이 있다.

이 시에서 자연은 더이상 경이의 대상이 아니다. 이정이 왕래하며 유유히 바라보는 대상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자아에게 충격을 주는 것도 아니다. 시인의 정서를 환기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이정에게 石澗臺가 의미 있는 이유는 그곳이 퇴계 이황과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적 자아인 ‘나[人]’가 시의 전면에서 나서서 석간대라는 자연의 공간이 어떤 의미인가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시에서 자연의 경이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인에게 압도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자연의 공간을 정서의 환기처로 인식할 때, 위 작품에서처럼 ‘추억의 환기’라는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는 상황을 넘어서 ‘현실 인식’이라는 사회적 차원으로까지 나아간 경지를 보여주는 작품도 있어 주목된다.

| | |
|---------|---|
| 春深草木連千里 | 봄 깊자 초목이 천 리에 늘어섰고 |
| 雨歇波聲漲一溪 | 비 개자 물소리 계곡에 넘치네. |
| 弄雛貪却風光好 | 새끼 새 희롱하며 풍광 즐김도 좋지만 |
| 剛尤挑蓼日已西 | 차조 깎고 삼 줄기 돋우는 사이 서산에 해가 지네. ²¹⁾ |

어정동에 봄이 깊어가자 초목이 들 가득히 늘어섰고 비 갠 뒤에는 계곡에 물이 넘쳐난다. 이러한 장면은 내영산을 읊었을 때처럼 이정에게 외적 경이로 다가올 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정은 이 공간에서 흥취를 발흥하거나 배회하지 않는다. 대신 이정은 풍광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현실의 삶도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차조를 깎고 삼 줄기를 돋우는 행위에서 자연의 공간은 흥취를 일으키거나 소요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기도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다. 그야말로 이 공간은 먹고 살아야 하는 공간이다. 이정은 이 시에서 자연에 압도되거나 동화되어 거기에 종속되지 않는다. 자연의 공간을 생존이라는 ‘삶’ 속으로 끌어옴으로써

20) <石澗臺>, 『韓國文集叢刊』 33, 474쪽.

21) <遊魚靜洞 己酉>, 『韓國文集叢刊』 33, 421쪽.

자연을 압도하고 있다.

이상을 요약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공간 | 詩作的 방법 | 공간 인식의 양상 | 작 품 | 작품수 |
|--------|-----------|-----------|--------------------------------------|-----|
| 자연의 공간 | 외적 경이의 시화 | 흥취의 표출 | 題支磯巖, 登佛日庵前峯 俯窺龍湫鶴湫(속집), 月夜遊小蓬島(在長鬢) | 3 |
| | | 완상의 대상 | 遊內迎山(원집), 葩串洞口(在淸州) 乙卯, 天淵臺 壬戌 | 3 |
| | | 정감의 환기 | 石澗臺, 遊魚靜洞 己酉 | 2 |

이정이 자연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외적 경이를 詩化할 때는 자연에 압도되어 경관 속에서 흥취를 드러내기도 하고, 경관과 하나가 되어 완상의 대상으로 노래하기도 하며,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경관을 인식하기도 하였다.

외경에 압도되어 卽物託興하는 詩作的 방법은 일반적 작시법이다. 이 정도 이러한 예를 따라 자연의 공간에서 흥취를 표출하고 있다.

또 자연의 공간을 완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또한 한시 작법의 일반적 현상이다. 산수자연에 대한 완상벽은 ‘와유臥遊’를 즐길 정도로 강렬한 것이다. 와유란 직접 가서 보지 않더라도 누워서 그림을 보거나 글을 읽으면서, 실제로 몸은 가지 않더라도 정신은 찾아가서 노니는 것으로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유람과 탐승의 욕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문화이다. 이렇게 볼 때 자연 공간에 대한 완물적 인식은 원초적인 욕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연의 공간에서 정감을 환기하는 일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연의 공간은 혼자 즐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류와 함께 흥취를 표출하고 대

상을 완상한다면 더욱 즐거울 것이다. 그래서 동류가 떠난 뒤 다시 보는 자연의 공간은 회고와 추억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런데 이런 정감적 인식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할 때 시적 세계도 동시에 확산한다. 개인의 정감을 환기하거나, 경물을 완상하거나, 흥취를 표출하는 경우 자연의 공간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며 세상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된다. 그러나 자연의 공간을 세상과 공유하게 되면 자연의 공간은 ‘모두’의 것이 되고, 함께 즐기고 흥겨워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遊魚靜洞 己酉>에는 정감의 환기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있다. 자연은 삶의 공간으로 인식되며 세상과 공유하는 공간으로 변하였다. 이정에게 자연의 공간은 완상과 흥취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삶이 생동하는 장이기도 하였다. 이정의 문학에서 이러한 점에 주목한다면, 그 시세계에서 ‘與民同樂’의 가치를 읽어낼 수 있다.

IV. 내적 상징의 시화 : 求道와 得道の 경지

1. 구도의 세계

자연의 공간을 詩化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그 공간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그 공간을 求道の 세계, 得道の 경지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연 공간의 외경은 흥취를 일으키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부여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

十年을 經營하여 草廬三間 지어내니
나 한 간 달 한 간에 淸風 한 간 맛져두고
江山은 드릴 뉘 업스니 돌려 두고 보리라 (송순)

(나)

靑山난 옛데하야 萬古에 프르르며
流水난 옛데하야 晝夜에 굿디 아니난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萬古常靑 호리라 (이황)

위 시조는 모두 강과 산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그런데 (가)에서는 강산을 흥취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心性 陶冶의 상징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정은 한시는 (가)처럼 자연의 공간에 대해 ‘외적 경이의 시화’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에 탄성을 지르거나 그것을 완상하는 가운데 내면의 정감을 고조시키기도 하고, 동시에 (나)처럼 ‘내적 상징의 시화’를 통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구체적 자연 공간에서 이정이 간취한 상징성은 자연의 공간을 구도의 세계로 인식하는 것이다.

仙舟上下漾江波
舊日曾遊問幾何
一泓靈源流浩浩
泝洄從唱武夷歌

신선의 배가 오르내리며 강 물결 출렁이니
일찍이 얼마나 노닐었나 물어보누나.
한 줄기 신령한 원두 호탕하게 흐르니
거슬러 오르며 무이가를 따라 하네.²²⁾

이 시는 도산구곡의 제5곡²³⁾인 탁영담을 읊은 것이다. 구곡원림을 경영하며 굽이마다 시를 지어 경치를 완상하고 심성을 도야하던 구곡 문화는 주자의 <무이도가>를 수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황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도산구곡을 설정하고 경영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탁영담은 현재 안동댐에 수몰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으나, 당시의 기록²⁴⁾에 의하면 도산서원 앞의 큰 굽이에 자리했다고 한다.

22) <濯纓潭>, 『韓國文集叢刊』 33, 474쪽.

23) 도산구곡은 퇴계 이황이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한 문헌이 전하지 않아 이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뒤에 이이순, 이야순, 이가순, 이종휴, 조술도, 금시술, 최동익 등이 도산구곡을 읊은 시가 남아 있다. 명칭이나 굽이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탁영담은 대체로 제5곡으로 설정하고 있다(김문기·강정서, 『경북의 구곡문화』, 경상북도·퇴계연구소, 2008, 52~56쪽).

이렇게 볼 때 이정이 탁영담을 찾은 것은 이황을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정은 구곡의 심상과 마주한다. 이렇게 되자 이정에게 탁영담은 그저 흘러가는 강물로 보이지 않는다. 入道次第를 형상화한 구곡은 스승의 가르침과 자신의 학문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도야하는 장이 된다. 이 때문에 탁영담은 신령한 원두의 물줄기가 호탕하게 흐르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이정은 물길을 따라 오르며 무이가를 부른다. 주자의 <무이도가>가 물줄기를 대상으로 구도의 세계를 펼쳤던 것처럼 이정의 <탁영담> 시도 구도의 세계를 펼쳐가는 장이 된다.

자연의 공간을 구도의 장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다음의 시에도 뚜렷이 나타난다.

(가)

洞門積氷雪
病客難重尋
他日如容我
窮源不厭深

골짜기 입구에 빙설이 쌓여
병든 나그네 다시 찾기 어려워라.
다른 날 나를 용납해준다면
원두가 깊어도 싫어하지 않으리.²⁵⁾

(나)

川回谷轉路層層
盡力躋扳次第登
十二瀑流流不息
源泉一脈本清澄

시내 굽고 골은 돌며 길은 끝이 없는데
온 힘 다해 끌어당기며 차례차례 오른다.
십이폭포 흘러내려 그치지 않으니
한 줄기 원두의 샘물 본래 淸澄하였네.²⁶⁾

두 시는 모두 내영산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가)에서 내영산은 원두를 깊이 갈무리하고 있는 도의 원천으로 그려져 있다. 비록 지금은 빙설이라는 자연에 압도되어 그 원두를 찾아가지 못하지만, 다른 날 다시 방문하여 찾고 말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4) “其外平蕪白沙 折而西流五里 至丹砂峽 又西流三屈折 而至陶山尙德祠下 爲濯纓潭”
〈淸涼山記〉『記言』卷28 下篇.

25) 〈過內迎山(在淸河)〉, 『韓國文集叢刊』 33, 467쪽.

26) 〈遊內迎山〉, 『韓國文集叢刊』 33, 475쪽.

(나)에서도 내영산 십이폭포의 웅장한 모습에서 물길의 근원인 원두를 추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십이폭포의 웅장한 모습은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이지만, 이정은 그 경이로움을 시화하지 않았다. 대신 웅장한 모습의 근원을 미루어 짐작하며, 인간의 심성과 그 수양을 고민한다. 십이폭포의 거대한 물줄기는 하루아침에 평지돌출한 것이 아니다. 원두의 작은 흐름이 끊이지 않고 모이고 이어져 만들어낸 장관이다. 이처럼 자연의 공간에 인간의 삶을 투영하는 ‘내적 상징의 시화’를 통해 이정은 자연의 공간을 구도의 세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2. 득도의 경지

‘내적 상징의 시화’는 자연의 공간을 궁극의 경지, 득도의 경지로 묘사하기도 한다. 이때 자연의 공간은 세속의 공간과 대조되는 공간으로 설정된다. 그리고 그곳은 삶이 완성된 공간이기도 하다.

(가)

水落千尋直
波翻萬斛春
人間定何許
毀譽耳全聾

계곡물 천 길에서 곧게 떨어지니
물보라 만 곡 곡식 짙은 듯 휘날린다.
인간 세상과 정녕 얼마의 거리에
명예든 비방이든 귀를 전부 막아버리네.²⁷⁾

(나)

因風褰宿霧
穿壑漾新波
坐久心源淨
歸來即大家

바람 일자 자욱한 안개 걷히고
골짜기를 따라 새로운 물결이 출렁이네.
오래 앉았으니 마음의 바탕 맑아지니
돌아와 보니 여기가 큰 집일세.²⁸⁾

(가)는 오십계의 용추를 찾아보고 지은 시이다. 천 길의 높이에서 떨어

27) <五十溪龍湫 壬戌>, 『韓國文集叢刊』 33, 418쪽.

28) <石臺(百泉西溪)>, 『韓國文集叢刊』 33, 419쪽.

어지는 물줄기는 휘날려 가루처럼 흩어진다. 자연의 경이로운 모습이다. 그런데 이정은 그 모습을 인간의 삶과 바로 연결한다. 폭포의 소리에 착안하여 폭포의 이쪽과 저쪽을 聖俗의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용추에 떨어지는 폭포 소리는 용추와 속세를 단절하고, 단절의 결과 용추는 성스러운 공간이 된다. 여기에서 자연의 공간이 聖所, 즉 득도의 경지로 설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나)는 백천의 서쪽 석대를 올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안개 걷히고 물결이 일렁이는 모습이 경이롭기는 하지만, 그 물길을 오래 내려다보며 ‘高土觀水’의 경지에 이르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한편 자연의 공간에서 득도의 경지를 인식하는 詩作은 ‘득도시’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일찍이 송나라 소옹은 <清夜吟>에서 자연물인 달과 바람에 빚대어 득도의 경지를 올은 적이 있다.²⁹⁾ 이정의 아래 시에도 그가 일정한 수준의 경지를 얻었음이 잘 나타나 있다.

| | |
|-------|---------------------------------|
| 谷靜山容肅 | 골짜기 고요하고 山容은 엄숙하여 |
| 雲收水面空 | 구름을 갈무리하고 수면이 맑다. |
| 歸來日欲暮 | 돌아오는 길 날 저물려 하는데, |
| 天地又秋風 | 천지에 또 가을바람 부는구나. ³⁰⁾ |

불일암에서 용추와 학추를 내려다보며 올은 시이다. 앞서 살펴본 『속집』에 실려 있는 작품에서는 용추와 학추의 웅장한 모습에 압도당한 영탄과 그로 인한 흥취를 올였다. 그런데 위 시에서는 그러한 자연 공간의 경이로운 모습이 전혀 부각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계곡은 고요하며 수면은 잔잔하다. 고요하고 청정한 공간에 문득 가을바람이 한 줄기 스치고 지나간다. 이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청정의 공간을 인식한 이후에 문득 깨닫게 된 현상이다. 그야말로 ‘맑은 의미[淸意味]’인 것이다.

이 시에서 자연의 공간은 완상의 단계를 지나 審察의 단계로까지 나

29) 『兩宋名賢小集』 권58, “月到天心處 風來水面時 一般淸意味 料得少人知”.

30) <登佛日庵前峯 俯窺龍湫鶴湫 戊午>, 『韓國文集叢刊』 33, 418쪽.

아가 우주의 철리를 깨닫게 하는 공간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하여 자연의 공간에 대한 ‘내적 상징의 시화’는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궁극의 경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상을 요약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공간 | 詩作의 방법 | 공간 인식의 양상 | 작품 | 작품수 |
|--------|-----------|-----------|---|-----|
| 자연의 공간 | 내적 상징의 시화 | 구도의 세계 | 宿安心寺(在固城), 濯纓潭, 遊內迎山(속집), 過內迎山(在清河), 石臺百泉西溪 | 5 |
| | | 득도의 경지 | 登佛日庵前峯 俯窺龍湫鶴湫 戊午, 蕩春臺, 五十溪龍湫 壬戌 | 3 |

자연의 공간은 외부의 정치로 존재하지만 인간은 여기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한다. 산과 물은 산과 물대로 존재하지만 인간은 산에서 불변을, 물에서 영원을 읽어낸다. 이 때문에 자연은 시인의 내면에서 다양한 상징으로 얹혀들고, 그것이 표출되어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정의 자연 공간 인식도 그러하다. 자연의 공간은 심성을 연마하는 대상으로 존재하며, 또 궁극적으로 완성해야 하는 대상으로서도 존재한다. 이때 ‘내적 상징을 시화’한 이정의 한시에서 특징적인 것은 ‘源頭’에 대한 집착이다. 일반적으로 원두는 물을 대상으로 시화하는데 이정은 산에서도 원두를 찾는다. 이런 모습에서 원두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집요한지 알 수 있다.

포항의 내영산을 읊은 시에서 이정은 산의 모습보다는 산이 품고 있는 물, 구체적으로 십이폭포에 주목한다. 원두는 심성의 근원이고 맑고 순결한 존재이다.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은 결국 심성을 수양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심성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다. 이처럼 이정은

물이든 산이든 원두를 찾음으로써 위기지학의 완성을 꿈꾸었다.

한편 이정 of 이러한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이룬 순간이 있었다. 이정은 이것 또한 자연의 공간을 상징화함으로써 드러내고 있다. 득도의 경지를 <蕩春臺>에서는 ‘10년의 정이 둘러 있다’고 하였으며, <五十溪龍湫 壬戌>에서는 ‘세속의 잡소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 버린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급기야 <登佛日庵前峯 俯窺龍湫鶴湫 戊午>에서는 ‘득도시’의 경지에 이른 성과를 보여주었다.

V. 외적 상징의 시화 : 상징의 해석과 새로운 상징 창출

1. 교훈의 표출

인공의 공간은 그것이 누정이든 서재든 정사이건 인간의 인식이 개입한 이름이 붙는다. 따라서 공간을 설정하고 그것을 명명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상징성이 개입하게 마련이다. 그 상징성은 대체로 역사적 사실, 인물의 행적, 哲理의 思惟 등으로 드러난다. 이 때문에 시인이 인공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作詩할 때는 우선 그 공간이 갖는 이름에 주목하고, 이어서 그 공간을 그 이름에 부합하는 대상으로 인식하려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연 공간의 경이로움에 대해 자아는 그것에 압도당하거나 거기에 동화하거나 그것을 극복하였다. 마찬가지로 외적 상징을 시로 표현하는 경우에도 자아는 그렇게 부여된 상징성에 매몰되기도 하며, 상징성에 동화하기도 하고, 상징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상징을 창출하기도 한다. 자아가 상징성에 위압당한 경우(상징>자아), 시는 訓導의 색채를 띠게 된다. 상징성에 동화되었을 때는(상징=자아) 상징을 해석하는 데 머무르며, 상징을 극복한 경우에는(상징<자아) 새로운 상징을 창출한다.

柳綠花紅物色殷
訪隨肯學少年羣
千年大地俗非古
一介迂儒心似薰
素食幾驚中澤雁
岸巾空望出山雲
仙桃洞裏新開宇
探勝歸來滌垢紛

푸른 버들 붉은 꽃 사이로 물색이 선명한데
찾아와 즐겨 배우려는 소년의 무리.
천 년의 이 땅에 풍속이 달라졌고
한갓 우월한 유생도 향기로운 마음이네.
소박한 음식에 연못 속 기러기 얼마나 놀랐으며
두건 젖혀 하늘 보니 산 구름이 지나가네.
선도동 안에 새로운 집 열었으니
좋은 경치 찾아와서 세속의 때 씻으리라.

虞家數語相傳後
萬古斯文白日明
一唯參乎心默契
再賢回也道重亨
光風東洛從容意
秋月西林感慨情
會友琢磨今有地
丁寧毋負此堂名

집안 안부 몇 마디 서로 나눈 뒤
만고의 우리 학문 대낮처럼 밝히네.
오직 증삼이 마음으로 묵묵히 계합하였고
어진 안회가 안빈낙도 거듭 누렸네.
밝은 빛 동락에 비치니 중용한 뜻이고
가을 달 서림에 뜨니感慨한 마음이라.
벗들 모여 갈고 닦는 지금의 이 땅에
정녕 정사의 이 이름을 저버리지 말지라.³¹⁾

이 시는 서악정사를 읊은 것이다. 서악정사는 이정이 경주부윤으로 부임하였을 때 세운 학교로 그 뒤에 사액을 받아 서악서원이 된 곳이다. 이 시의 상징성은 ‘精舍’라는 이름에 축약되어 있다. 서악정사는 학교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며, 이정은 이 학교를 통해 자신의 성리학적 이상을 펼치려 한다. 이 서악정사는 물려드는 선비를 교육함으로써 유가적 이상을 곳곳에 전하는 기점이 될 것이며, 그 여세를 몰아 경주를 儒鄉으로 만들 것이다. 이에 이정은 선도동에 새집을 열었으니 세속의 때를 씻으라고 하였으며 또 증삼과 안회의 학문을 이어 학당의 이름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였다. 학당을 새로 열고 그곳에서 열심히 학문에 힘써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다.

서악정사는 경주[서악]를 대표하는 학문의 전당이라는 표층적 상징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정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로 인해 천년

31) <二月三十日 西岳精舍有作 二首>, 『韓國文集叢刊』 33, 481쪽.

고도 경주의 풍속이 달라지고 우월한 선비들이 학문에 젖어서 ‘斯文이 대낮처럼 밝아질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이 시는 學童에게 기대하는 심정만 표출한 것이 아니다. 이 시를 통해 그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절대로 서악정사의 이름을 저버리지 말라는 마지막 구절은 기대를 넘어서 훈육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상징이 시인을 압도하여 상징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자리에 오른 상황을 볼 수 있다.

2. 상징의 해석

인공의 공간을 대상으로 ‘외적 상징’을 시화할 때 자아와 상징이 비슷한 힘을 가지고 길항의 관계에 있을 경우, 그 공간은 상징을 표방하는 공간이 된다. 이때 시어는 상징의 동어반복 역할을 한다.

幼少憐無學
壯年尙面牆
昨非今悟得
秉燭幾悲傷

어릴 때는 배움이 없음이 안타까웠고
장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견식이 부족했네.
지난날 잘못을 이제야 깨달으니
촛불 잡고 글 읽으며 얼마나 슬퍼했나.³²⁾

삼한재의 命名 연유를 설명하는 시이다. 인공의 공간에 이름을 붙인 이유를 설명하는 이 시는 공간의 상징을 바로 시의 내용과 병치할 수 있다. <龜巖>³³⁾ 역시 이 시처럼 직접적 서술을 통해 상징의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한편 인공의 공간에 부여한 상징은 역사적 사실이나 성리학적 의미를 활용하여 드러내기도 한다.

臺上觀魚却兩忘

대 위에서 물고기를 보다가 物我를 잊었으니

32) <三恨齋>, 『韓國文集叢刊』 33, 418쪽.

33) 거북 머리엔 이끼 줄기 푸르고(龜頭苔髮綠) 거북 배엔 밝은 햇볕 내려쬰네(龜背晴陽曝). 바름과 뉘우침 반드시 알려주니(貞悔爾須知) 주인은 삶의 길을 취할 수 있네(主人爲取則). <龜巖 丁未>, 『韓國文集叢刊』 33, 418쪽.

綠波深處自洋洋
昭昭可見流行妙
潑潑心頭肯助長

푸른 물결 깊은 곳에 절로 양양해지네.
밝고 밝음에서 천지유행의 오묘함을 보겠으니
활발발한 심두에서 어찌 조장하리오.³⁴⁾

이 시는 양산 관어당을 읊은 것이다. 물고기를 본다는 것은 ‘鳶飛魚躍’의 철리적 장면을 포착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에서도 物我를 잊고 천지유행의 오묘함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 깨달음에 이어서 활발발한 심두는 조장할 수 없다는 성리학 일반의 언술을 펼쳤다. 여기에서 관어의 상징성은 이정의 학문적 깊이에 그대로 용해되어 철리를 깨우치는 시로 다시 탄생한 것이다.

3. 새로운 상징의 창출

인공의 공간에 부여된 상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아의 감성을 투사할 때, 인공물은 感傷의 대상이 된다.³⁵⁾

小臺頽沒是臨清
樹擁寒江漏日明
訪古徘徊堪歎息
爲修遺址託深情

작은 누대 무너졌으니 여기가 임청대라
서늘한 강가 늘어선 나무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네.
옛터 찾아와 배회하니 탄식 금할 길 없고
남은 자취 어루만지며 깊은 정을 맡기네.³⁶⁾

이 시는 이정이 순천부사로 부임하여 한훤당 김굉필이 유배 생활을 하며 노닐었다는 임청대를 찾아가 지은 것이다. 무오사화로 김굉필과 조위가 귀양살이를 하던 중 천변에서 소일하면서 聚石으로 대를 만들었는데 조위가 ‘임청대’라 이름하였다. 이때 임청은 “항상 마음을 깨끗이 가지라”는 뜻으로,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심성의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으려

34) <梁山觀魚>, 『韓國文集叢刊』 33, 422쪽.

35) 이때 감상은 상징적 의미에 바탕으로 두고 발생한다는 점에서 ‘내적 경이의 시화’와는 다르다.

36) <到昇平 訪臨淸臺>, 『韓國文集叢刊』 33, 422쪽.

는 선비의 곳곳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정은 김굉필이 사사된 지 60여 년 뒤에 순천부사로 부임하여 바로 임청대를 찾아갔을 것이다. 당시 임청대는 무너져 자취도 없었고[臺廢無遺址] 오래된 나무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只有老樹]. 이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복잡하였을 것이며 그 복잡한 감정을 시로 표출하였다. 이때 이정이 ‘임청’이라는 상징이 주는 의미에 주목하여 선현의 의지를 본받겠다고 선언하였다면 이는 외적 상징이 자아를 압도한 것이 된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임청대의 경관을 묘사하고 이어 북받치는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탄식을 금하지 못하고 배회하며 남은 자취를 어루만지면서 이정은 선현이 남긴 그윽한 정에 젖어 든다.

이것은 인공의 공간이 내재한 상징이 그 의미를 다하지 못하고 자아가 생성한 새로운 의미 속에 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인공의 공간에서 기존의 상징과 차별성을 갖는 새로운 상징이 창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³⁷⁾

이상을 요약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공간 | 詩作의 방법 | 공간 인식의 양상 | 작품 | 작품 수 |
|--------|-----------|------------|---|------|
| 인공의 공간 | 외적 상징의 시화 | 교훈의 표출 | 二月三十日 西岳精舍有作 二首 | 1 |
| | | 상징의 해석 | 次梅鶴亭韻 丁未, 夏日 登靜觀臺, 寬心亭(在黃岡), 龜巖 丁未, 三恨齋, 登靜觀臺(退溪先生 改以大觀臺) 己巳, 梁山觀魚, 山海關 丁酉 赴京時, 忠州自警堂 次李忘軒青韻, 宿斷俗寺夜雪新霽 月色如畫, 次友蓮堂韻, 題孤山亭, 凝翠樓, 次李求禮梅月亭韻 | 14 |
| | | 새로운 상징의 창출 | 留宿灌圃堂, 到昇平 訪臨清臺 | 2 |

37) 이것은 다음에 기술할 ‘내적 경이의 시화’가 상징을 ‘발견’하는 것과 차별성을 갖는다.

자연의 공간에 대해 외적 상징에 주목하여 이를 詩化하는 경우에는 교훈의 표출, 상징의 해석, 새로운 상징의 창출이라는 세 가지 양상으로 드러난다. 이때 각각의 양상은 상징과 자아 사이의 관계에 따른 의미 분화이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정의 시에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양상은 ‘상징의 해석’이다. 이는 인공의 공간이 가진 상징을 시어를 통해 다시 진술하는 것으로, 상징이 가진 의미를 시를 통해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인공의 공간에는 외적 상징이 함유되어 있다. 그것은 역사적 사건, 성현의 일화, 성리학의 이념 등이다. 이런 상징성을 마주하였을 때, 이정은 그것에 새로운 상징을 개입시키거나 상징에 매몰되어 혼욕하기보다는 상징의 본질적 의미를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징은 더욱 분명한 색채를 띠고 객관화되며, 내면에 잠재한 의미는 외부로 선명하게 표출된다.

이정은 顧庵 宋寅(1516~1584)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문학론을 피력한 적이 있다.³⁸⁾ 여기에서 이정은 글은 도를 실어야 한다는 載道論

38) 무릇 古人의 이른바 文이라는 것은 今人과는 다릅니다. 고인의 문은 문을 하는 데 뜻을 두지 않았습니니다. 대개 구름이 가고 비가 내리며, 해가 비치고 달이 떠오르며, 산이 높이 솟고 물이 흐르며, 조목이 널리 꾸며주는 것이 천지의 문입니다. 천지는 스스로 그것이 문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和順이 마음에 쌓이고, 아름다운 빛이 밖으로 드러나며, 동작에는 威儀가 있고, 말을 하면 경전이 되는 것은 성현의 문입니다. 성현 또한 스스로 그것이 문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옛사람들은 道로써 문을 하였으니, 도로써 문을 한다는 것은 문을 하지 않으면서 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 누가 문을 하지 않는 문이 바로 천하의 지극한 문임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논어』와 『맹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육경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시경』이 되는데, 혹은 기이하고, 혹은 간략하며, 혹은 권면하고, 혹은 경계하여 旨趣의 정밀함과 聲律의 알맞음이 모두 저절로 그러한 데서 나올 따름입니다. 어찌 일찍이 후인들이 억지로 뜻을 만들어내어 썩은 나무를 조각하고 얼음에 새기는 것처럼 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大抵古人之所謂文者 與今人異 古人之文 無意於爲文者也 夫雲行雨施 日照月臨 山川之流峙 草木之賁飾者 天地之文也 天地不自知其爲文 和順積中 英華發外 動作有威儀 言語爲經籍者 聖賢之文也 聖賢亦不自知其爲文 是故 古之人以道爲文 以道爲文者 不文而文者也 噫 孰知夫不文之文 是乃天下之至文耶 以之爲語孟 以之爲六經 以之爲三百篇 或奇或簡 或勸或戒 旨趣之精 聲律之協 咸出於自然耳 曷嘗若後人之牽強作意 雕朽鏤氷

的 문학관을 견지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표현할 경우에는 ‘不文而文’, 즉 억지로 글을 꾸미려고 하지 않아도 절로 글이 되는 것을 이상적인 글쓰기로 보았다. 이때 文에 道를 실어야 한다는 것은 글에는 유가적 철리나 수양론 등의 상징적 의미가 노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꾸미지 않는 글이란 글의 자연스러움과 마땅함[當爲]에 대한 언급이다. 이정이 인공의 공간이 담지하고 있는 외적 상징을 대하는 태도는 이러한 그의 문학론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상징성을 담담히 외부로 노출하면서 공간과 결부하여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載道요 不文而文이다.

VI. 내적 경이의 시화 : 공간의 분위기 묘사, 그리고 상징의 발견

1. 공간의 분위기 묘사

인공의 공간에 대해 시각을 달리하여 그 상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면 인공의 공간이 표방하는 상징을 넘어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 이때는 자연의 공간에서 驚異를 표출하였던 것처럼 인공의 공간에서도 경이로움이 詩作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경이는 시인의 마음 안에서 기존의 상징과 갈등을 겪은 뒤 다시 인식한 경이로움이다. 또 인공의 공간이 가진 상징성을 압도할 만한 감흥이 일어날 때 생성되는 경이로움이다. 이 때문에 이러한 작시 태도를 ‘내적 경이의 시화’라 이름할 수 있다.

이정은 인공의 공간을 노래하면서 밖으로 드러나는 상징적 의미보다 공간의 분위기와 배경에 집중하는 시도 남겼다.

者之所爲哉) <與宋頤庵>, 『한국문집총간』 33, 484~485쪽.

扶桑東望海漫漫
初日曚曚縹緲間
獨立荒臺思不極
數聲孤鶴過前山

해 뜨는 동쪽 바라보니 바다는 광활한데
먼동 뜨는 어슴푸레한 곳에 떠오르는 해 있구나.
홀로 황량한 대에 서 있자니 근심이 끝없는데
외로운 학 가끔 울며 앞산을 지나가네.

大王巖下波千丈
利見臺頭月一痕
莫向海門吹玉簫
萬山紅樹欲消魂

대왕암 아래엔 천 길이나 치솟는 파도
이견대 가에는 달빛 한 조각.
해문을 향하여 옥 피리마져 불어서
온산의 붉은 나무에 닳 빠지게 하지 마라.³⁹⁾

『삼국유사』 「문무왕조」에는 이견대에 대하여 “대개 유훈에 따라 뼈를 葬事한 곳이니 이름은 대왕암이요 사찰은 감은사이다. 뒤에 용이 모습을 드러낸 곳을 이견대라 이름하였다.”⁴⁰⁾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본다면 이견대에서는 호국의 염원을 읽는 것이 일차적인 독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정은 이런 상징적 의미는 짐짓 모른 채하면서 이견대에서 동해를 바라보며 느끼는 호연지기와 이견대의 깊어가는 가을 서정을 노래한다. 이는 이정이 이견대라는 상징정보보다 이견대와 그 주변의 경물이 드러내는 외경을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山寺를 노래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이정은 여러 차례 절을 방문하였고, 절을 대상으로 한 시를 몇 편 남겼다. 그런데 대체로 불교적 의미를 풀이하거나 표출하지 않고 사찰의 공간적 분위기를 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산사에 명명한 불교적 상징을 이정은 고려하지 않았다. 대신 산사에서 머물던 시간과 산사와 주변의 공간이 주목의 대상이었다.

二月金陵雪半消
新波鳴玉出松橋
偶然乘興來遊處

이월 금릉에 눈이 반쯤 녹으니
새로운 물결 옥 소리 내며 송교에서 나오네.
우연히 흥을 타고 여기 와서 노니니

39) <利見臺 二首>, 『韓國文集叢刊』 33. 422쪽.

40) 『三國遺事』 권2, 「紀異」 제2, 萬波息笛, “蓋遺詔之葬骨處 名大王岩 寺名感恩寺 後見龍現形處 名利見臺”.

桂影穿雲萬壑遙

구름 뚫은 계수나무 그림자 온 골짜기에 아득해.⁴¹⁾

김천 직지사를 읊은 시이다. 직지사는 我道和尚이 선산 桃李寺를 개창할 때 함께 지었던 절이라고 하는데, 四溟大師가 출가하여 득도한 절로도 유명하다. 直旨라는 이름에 대해 다양한 이설이 있는데, 대체로 “不立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을 표방한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직지사에 명명한 이러한 상징성을 이정은 언급하지 않는다. 대신 봄을 맞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흥취를 주체할 수 없어서 노니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이것은 외적인 상징 대신 내적인 경이를 시화한 것이다. 이정에게 산사는 불교적 상징의 세계가 아니라 자연의 공간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2. 상징의 발견

인공의 공간이 가지는 상징을 고려하지 않고 공간의 주변이나 분위기를 살피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의미를 간취해 낼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는 시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공간을 노래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기존의 상징을 응용하여 만들었던 무엇이 아니라, 상징과 별개로 생성된 것이라는 말이다. 이 때문에 ‘창출’이 아니라 ‘발견’이며, 외부의 경이가 내적 심화의 과정을 그친다는 점에서 ‘내부의 경이’라 할 수 있다.

亂山高下裏
寥落一琳宮
雲向青高去
風從嶺嶠通
乾坤心自遠
身世道還窮

어지러이 산들이 오르내리는 속에
한 절집이 쓸쓸히 앉았네.
푸른 하늘에 높이 구름이 흘러가고
구불한 고개에 바람이 지나간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마음이 절로 원대해지니
세상살이 찌든 이내 도가 도리어 궁색해지네.

41) <遊直指寺 丁未>, 『韓國文集叢刊』 33, 472쪽.

頭上看星斗
龍泉躍匣中

머리를 들어 북두성 바라보니
은하수가 우주 안에서 빛나고 있네.⁴²⁾

이 시는 사천 배방사를 읊은 것이다. 한적한 골짜기에 절집이 쓸쓸히 자리 잡고 있다. 수직으로 올려다보니 구름이 높은 하늘을 유유히 지나가고 있고 수평으로 멀리 바라보니 고개 너머 바람이 불고 있다. 공간의 상징이 아닌 외경에 집중한 모습이다.

이때 시인은 외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식을 확장한다. 그 과정에서 세속의 먼지를 벗어난 청정한 공간과 대비되는 사육에 가려 공색해진 나의 도가 더욱 선명히 보인다. 어떻게 할 것인가? 머리를 들어보니 은하수가 우주에 빛나고 있었다. 그렇다. 내 마음의 본성은 저 은하수처럼 항상 밝고 아름다웠다.

배방사가 가지는 불교적 상징은 이 시에서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배방사가 위치한 청정의 공간, 자연의 공간이 고려의 대상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보니 심성의 부족한 부분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닦아야겠다는 다짐이 뒤를 잇는다.

南山相對巖風持
萬樹回環舞影徹
竟日臺頭觀物處
有時飛雨灑松枝

남산을 마주 보며 의젓하게 바람을 맞으니
온갖 나무 휘돌아오는 물보라에 그림자마저 춤을 추네.
종일토록 대 위에서 경물을 바라보니
때때로 비 흠날려 소나무 가지 씻어주네.⁴³⁾

이 시는 정관대에 올라 사면을 바라보는 흥취를 읊은 것이다. 정관대라는 인공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서술된 내용은 정관대 주변의 경관과 분위기이다. 대에 올라 바람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그 앞에 물보라가 일렁인다. 그 모습이 좋아 종일토록 머물렀는데, 이때 이정이 발견한 것은 비가 흠날려 소나무를 씻어주는 풍경이었다.

42) <排房寺 戊申>, 『韓國文集叢刊』 33, 468쪽.

43) <登靜觀臺>, 『韓國文集叢刊』 33, 475쪽.

일견 단순해 보이는 이 장면은 사실 ‘靜觀自得’의 경지를 설파한 것이다. 바쁜 삶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고요히 침잠하여 내면을 살피는 것이 그 답이다. 그러면 때때로 비가 흠뻑려 소나무를 씻어주듯이 스스로 터득하는 경지에 오를 수 있다.

이것은 인공의 공간을 읊으면서 감추어져 있던 상징을 발견한 것이다. 상징에 압도되어 ‘정관’은 이런 것이라고 설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징의 해석’과 다르며, ‘정관’과 다른 어떤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징의 창출’과도 다르다. 시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정관의 경지를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상징을 ‘발견’하게 한다.

이상을 요약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공간 | 詩作의 방법 | 공간 인식의 양상 | 작품 | 작품수 |
|--------|-----------|------------|--|-----|
| 인공의 공간 | 내적 경이의 시화 | 공간의 분위기 묘사 | 遊直指寺 丁未, 利見臺 二首, 次黃磬駕鶴樓韻 訪吾魚寺 壬戌, 自頭流 還泊牙湖 登快哉亭 戊申, 訪吾魚寺(寺在延日) | 6 |
| | | 상징의 발견 | 排房寺 戊申, 登靜觀臺 | 2 |

이정이 인공의 공간을 대상으로 내적 경이를 시화할 때는 공간의 상징과 무관한 외적 분위기를 묘사하기도 하고, 공간의 상징성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공간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방향으로 작시한 것은 그가 그 공간을 마주한 시간과 그 공간이 자리한 위치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利見臺 二首>의 시·공간적 배경은 동틀 무렵 바다에 인접한 곳이다. 해가 바야흐로 수평선에서 솟아오르고 물결이 거세게 바위에 부딪치는 광경 속에서 ‘利見’의 상징적 의미는 표출될 여지가 없었다. 또 <遊直指寺>의 시·공간적 배경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려는 2월의 고즈넉한 산사이다. 만물이 막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시인은 ‘直旨’의 심오한 의미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 시에서는 ‘외적 경의의 시화’에서처럼 ‘興’이 주된 시어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한편 인공의 공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속과 단절된 공간에서 심성의 도야를 꿈꾸고(<排房寺>) 소나무에 흔들리는 빗방울에서 靜觀의 경지를 읽어내기(<登靜觀臺>) 위해서는 먼저 상징적 언어가 가지는 내외의 의미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필요하다. 동시에 상징적 의미 사이의 관계와 위차, 선후와 고하 등 실로 고차원적인 철학적 체계가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체화하고 내면화하여 실천해가려는 의지도 필요하다.

이정이 자연의 공간을 통해 구도의 세계를 추구하기도 하고, 득도의 경지를 그려내기도 한 것으로 보아 ‘공부’를 통하여 이러한 경지에 일정 부분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때의 감흥을 득도시로 표현하기도 하였으니 그의 경지는 더욱 분명하다. 그런 그의 공부가 인공의 공간을 대상으로 작시할 때도 빛을 발하여 ‘내적 경의의 시화’가 이루어지고 이때 상징이 재발견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지게 된다.

VII. 맺음말

시인이 대상으로 삼는 공간은 크게 자연의 공간과 인공의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시인은 이를 대상으로 외적인 경의를 시화하기도 하고 내적인 상징을 시화하기도 하며 외적인 상징을 시화하기도 하고 내적인 경의를 시화하기도 한다.

이정이 시를 쓰는 방법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연의 공간에 대해서는 외적 경의를 시화하여 외경에 압도되어 흥취를 표출하기도 하며, 외경에 동화되어 자연의 공간을 완상의 대상으로 보기도 하였다. 또 외경을 통해 정감을 환기하여 자연의 공간에서 추억에 젖기도 하였으며, 한 차원 나아가 외경이 삶의 현실을 배태한 공간임을 분명히 드러내기

도 하였다.

자연의 공간에 대해 내적 상징을 시화할 때는 자연의 공간에서 도를 구하기도 하고 그 공간을 도가 실현되는 경지로 파악하기도 하였다. 이때 ‘源頭’에 대한 집착은 구도의 절실함으로 통하였고, 자연은 속세와 격리된 이상향이자 도가 실현되는 ‘大家’였다. 이정은 여기서 더 나아가 득도의 체험을 형상화함으로써 내적 상징의 시화가 이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인공의 공간을 대상으로 외적 상징을 시화할 때는 상징에 매몰되어 교훈적 어조로 당부하기도 하였고, 인공물이 담지하고 있는 상징성을 풀어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정은 외재한 상징을 넘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상징을 창출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하였다.

한편 인공의 공간에 대해 내적 경이를 시화할 때는 그가 처한 시공간적 분위기에 젖어 상징을 버려두고 공간의 분위기를 묘사하였다.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발견’해내는 경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인공의 공간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징적 언어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필요하고, 상징적 의미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철학적 체계가 완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의미를 체화하여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정의 시 쓰기는 ‘경물시’만 놓고 볼 때,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시작의 네 가지 양상이 모두 구현되어 있으며, 그 표출 양상도 다양하다. 이뿐만 아니라 현실에 눈감지 않고 직시하며, 득도의 경지를 체험하고, 새로운 상징을 창출하며, 감춰진 상징을 발견해내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그 가치를 더욱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정을 학자이자 문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한계와 과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정의 시는 ‘경물시’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가 남긴 시의 다양한 양상은 그것대로 재론되어야 하며, 각각의 논의는 유기적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정이 지은 한시의 실체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또 이정의 ‘경물시’는 당대 및 앞뒤의 시와 비교 속에서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방향성도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 퇴계학과 사이의 양상과 남명학과와의 관계, 전대의 의미와 그 후대의 지향 등이 다양하게 비교되어야 한다. 또 불교 시인이나 여류시인과의 비교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정의 한시 내부에서의 상관관계도 밝혀야 할 과제이다. 통시적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며, 그것에 영향을 준 계기나 공부는 무엇이었나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 공시적 관점에서 중용과의 관계, 철학적 인식 등도 따져보아야 할 과제이다. 특히 중용과의 관계는 “누구나가 보는 책이 아니었던 『중용대전』과 『주자어류』를 참고하며 중용을 깊이 소화하고 있었던 인물, 그래서 본체론 중심의 『중용』 이해가 수양론 중심의 이해로 건너가는 교량을 만든 인물이 바로 구암이었다.”⁴⁴⁾라고 평가하였을 만큼 중요한 담론이다. 중용에 대한 구암의 이러한 이해는 시 쓰기에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이 논문은 2022년 5월 2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6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44) 이세동, 「구암 이정의 중용학」, 『퇴계학과 한국문화』 44,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9, 296쪽.

참고문헌

- 이 정, 『龜巖集』, 『韓國文集叢刊』 33, 민족문화추진회, 1989.
- 성기옥, 『국역 구암집』, 사천문화원·구계서원 대관대유계획, 2013.
- 강구울, 「구암 이정의 생애와 시세계의 몇 국면」, 『우리문학연구』 20, 우리문학연구회, 2006.
- 강민구, 「구암 이정과 사천·진주지역의 퇴계학과」, 『퇴계학과 한국문화』 31,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2.
- 김문기·강정서, 『경북의 구곡문화』, 경상북도·퇴계연구소, 2008.
- 신병주, 「『구암집』 해제」, 『남명학연구』 10,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2000.
- 오보라, 「이정 『구암집』 수록 작품의 작자에 대한 재검토」, 『한문학보』 29, 우리한문학회, 2013.
- 이성혜, 「구암 이정의 시 : 진지한 학문하기」, 『동양한문학연구』 26, 동양한문학회, 2008.
- 이세동, 「구암 이정의 중용학」, 『퇴계학과 한국문화』 44,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9.
- 정병호, 「구암 이정의 애민시에 대하여」, 『동양예학』 18, 2008.
- 정우락, 「『중용』이 구암 이정의 문학에 미친 영향」, 『동방한문학』 25, 동방한문학회, 2003.
- 정우락, 「龜巖 李楨 연구의 반성적 모색」, 『퇴계학과 유교문화』 52,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Abstract

The direction of Guam Lee-jeong[龜巖 李楨]'s Writing
a poem through 'Gyeongmul Poem[景物詩]'

Baek, Woon-young

The space targeted by poets can be largely divided into natural space and artificial space. The poet poems external wonders, internal symbols, external symbols, and internal wonders.

The way Guam Lee-jeong writes poems is also not out of this. According to these starting methods, Guam's poems were analyzed. First, the external wonders were visualized in the natural space, overwhelmed by the external view, and the natural space was assimilated into the external view and viewed as an object of completion. In addition, by evoking affection through the outer diameter, he was immersed in memories in the natural space, and furthermore, it was clearly revealed that the outer diameter was a space that originated the reality of life.

Second, when poeticizing the inner symbol for the natural space, the Tao was obtained from the natural space and the space was identified as the state of realizing the Tao. At this time, the obsession with "源頭" led to the urgency of the composition, and nature was a "大家" where utopia and capital were realized, isolated from the world. Guam went further from here, and by embodying the experience of 得道, it has reached the highest level that the poetry of the inner symbol can achieve.

Third, when poeticizing external symbols for artificial spaces, they

were buried in symbols and asked for them in an instructive tone, and explained the symbolism of the artifacts. However, without staying here, Guam went beyond the external symbols to create its own unique symbols.

Fourth, when poeticizing the inner wonder for the artificial space, he was immersed in the time and spatial atmosphere he was in, leaving the symbol behind and describing the atmosphere of the space. In addition, it took a step further from here and reached the stage of 'discovering' the symbolic meaning of space.

It can be said that Guam's poetry has reached a certain level in terms of "Gyeongmul Poem[景物詩]". All four aspects of the beginning are implemented, and their expression patterns are also diverse. In addition, it has faced reality without turning a blind eye to reality, experiencing the level of "得道", creating new symbols, and discovering hidden symbols, so its value can be appreciated even more. This is why we call Guam a scholar and a literary man.

keywords :

Lee-jeong(李楨), Guam(龜巖), a poem of internal wonder, a poem of external wonders, a poem of internal symbols, a poem of external symbols, Gyeongmul Poem[景物詩]

